

From: long

Sent: January 03, 2011 9:37 AM

Subject: <조일래 辛卯年 元프칼럼>..."<산토끼 童謠>는 누가 만들었나...???"

[<이일래(李一來 :본명:무근 -1903-1979)>

-한 한국의 동요(童謠)작가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이 일래 선생은 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창신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서울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여 延禧전문 수물과에 입학하여 1927년 3년종퇴하고 낙향하여 마산창신학교 교사직에서부터 1928년 창녕군 이방면 이방공립보통학교 훈도교사 재직중 <산토끼>,<단풍>등을 작사 작곡하였다.

1936년 마산제비산에 있는 호주선교원 어학교사로 있다가 일본대학 예술원음악과에 1년 수학한바 있다.

1938년 제비산 호주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을 출간하게 된다.

처음 출간시에는 1,000부를 찍었으나 출판사측에서 모두 회수해 갔다. 1939년 다시 1,000부를 찍어 700부가량은 호주등 세계각지로 배부되었다고 한다.

특히 당시 梨花여전 학장이었던 아펜젤라 박사의 영역가사까지 붙여 외국에도 우리동요음악을 소개하였다.

이일래의 스승인 김영환은 일찍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음악을 전공한 서양음악가라 할만한 이였다.

1925년 김영환이 출강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래는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연희전문학교에서 음악수업을 받던 그는 흥난파가 First Violinist,

이 일래가 Second Violinist,

김영환이 Piano를 맡아 YMCA에서 트리오로 연주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1936-1945년 마산문창교회 당시 朱基撤목사<1931-1936>가

시무하다가평양산정현교회로 떠나심-

송창근목사의 신학논쟁으로 그만 두신 후임으로) 의 성가대 지휘도 맡았다고 한다.

1939년에 초판된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에는 <산토끼> <봄노래> 등 이일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동요 13 편과 이원, 최순애, 이은상, 이광래 노래말에 붙인 <불이야>, 성서에 곡을 붙인 <시편 23 편> 등 모두 21 편이 실려 있다.

이일래가 내놓은 동요 <산토끼>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단순한 멜로디에 재미있는 노랫말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수 있었던 탓이었을 것이다.

<산토끼>가 나라 잃은 시기에 어린이 들로 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 까지 널리 불려 졌지만

民族感情을 고무시켰다는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해서 정작 이일래는 작사 작곡가가 자신임을 밝히지 못하였다.

<산토끼>노래를 항일정신이 담긴 노랫말로 바꾸어 불러 곤혹을 치른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한국동란이 끝나자 <산토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 이 노래는 널리 알려졌으나 작사 작곡자를 알 길이 없어 교과서 편찬위원들은 처음에는 작자미상으로 실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일래 자신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동요집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산토끼>의 작사 작곡자로서 쉽게 나설수 없었다고 한다.

<산토끼>의 작사 작곡자가 밝혀진 것은 <산토끼>가 만들어진 후 반세기만인 1975년이 었다.

그의 고향 친구가 1939년에 발간된 <이일래 조선 동요작곡집>을 소장하고 있어 影印本을 발간하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산토끼>

산 토끼 토끼야 너 어디로 가나

강충강충 뛰어서 너 어디로 가나
산고개 고개를 나 넘어서
토실토실 밤송이 주우려 간단다.

<다람쥐>

알밤꿀밤 땃때굴
다람쥐가 쪼르르
가랑 잎이 팔랑
다람쥐 눈이 뚱글
가을바람 우수수
밤한톨 물고서
다람쥐가 나무위로 쪼르르.

<산토끼>는 철 모르게 뛰어 노는 토끼의 처진스러운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 동요역시 "강충강충"이라는 擬態語와 동작이 큰 "뿔다"라는 동사가
토끼의 움직임을 더욱 더 재미 있게 표현해 내고 있다.

"땃때굴" 밤이 굴러가면 다람쥐도 그것을 따라 쪼르르 움직인다.

그 사이 가랑잎이 바람에 "팔랑"거리면 다람쥐의 놀란 눈이 "뚱글"해진다는
이야기를 지닌 詩가 <다람쥐>이다.

擬態語의 사용과 잼싸게 움직이는 다람쥐를 통해 다람쥐의 귀여움을
한 눈에 읽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래동요의 문학적 특성은 3 음보와 4 음보의 기본율격을 사용했으며
곡을 붙이기 위해 詩語를 늘리는 등 변형형태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특유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의성(擬聲), 擬態語와 반복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아울러 동요는 어린이 생활을 어린이들의 언어로 아주 친근하고 순수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동요는 마치 동심의 세계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1975년 影印本の 서문에

"" 나의 젊음의 정열은 오직 어린이를 위하여 무엇을 봉사할 것이냐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루워진 것이 없이 나는 이미 황혼을 넘어 영원한 세계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원컨대 이 노래속에 남아 있는 <산토끼>를 귀엽고 예쁘게 이
江山에

널리 퍼 나가면은 그것으로 만족할 따름입니다""

또 영인본 책머리에 露山 李 殷相은

""나라 잃은 시기 이책이 나오자 각처에서 작곡집에 실린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만큼 그의 동요가 끼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李 一來는 나의 동향인이요, 동갑이요, 동창생인데다가 집안에서는
나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요-----""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이일래는 어린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데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1978년 제 2회 아동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1978년 12월에는 그의 제자들이 힘을 모아

창녕군 이방초등학교에 <산토끼노래비>를 건립하였다.



· 1938년 조선음악작품집에 실린것.
 · 1915년 " 영인본에 실린작품 (원본)
 산로끼

天籟스럼지

李-來作譜作曲

THE MOUNTAIN HARE

WHERE ARE YOU GOING TO,
 HARE OF THE MOUNTAIN,
 WITH A HOP-HOP HOP-PITY-HOP
 LOP-LOP LOP-PITY-LOP!

HOP OVER THE MOUNTAIN PASS,
 UNDER THE HIGHEST PEAK,
 LYING HIDDEN IN THE GRASS
 SWEET ROUND CHESTNUTS SEEK





경남 창녕군에 따르면 이 노래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8년 가을
창녕군 이방면 안리에 있는 이방보통학교(현 이방초등학교)에 재직하던
고(故) 이일래(1903~1979) 선생이 직접 작사, 작곡한 것이다.